

러, 징집 반발에 엄포... “탈영·투항 시 10년 징역”

동원령 반대 2번째 시위 확산, 24일 724명 추가 구속 젊은 층 탈출 시도... “국민이 전쟁 지지 선전은 거짓”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30만명 군 동원령 계획에 반대하는 두 번째 시위가 주말 동안 러시아 전국으로 확산됐다.

25일(현지시간) BBC-웹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단체 오비디인포(OVD-Info)는 전날 전국 32개 도시에서 724명이 구속됐으며 특히 교외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위가 일어난 21일에는 시위대 1400명 이상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 인사와 더불어 예비군 동원령에 불만을 가진 젊은 이들을 용아메기 위한 법 개정에서 서명했다. 적에게 자진 투항하거나 탈영하는 등 명령에 불복종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군인이 투항·탈영하거나 전투를 거절하면 최대 10년까지 투옥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군에 1년 동안 복무하겠다고 자원하는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시민권을 지급한다는 법안도 승인됐다. 러시아군 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5년 거주자 요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징집을 회피하려는 젊은 러시아인들의 탈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병역기피자 탈출 시도 소식을 전부 “가짜 뉴스”로 발표했으나, 국경을 건너기 위한 차량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베로오세티야 공화국 내무부에 따르면 국경선에 인접국 조지아로 입국하려는 차량 2300여대가 몰렸다고 전해졌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1주 동안 입국을 원한 러시아인들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핀란드 정부는 23일 러시아 관광객 입국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핀란드와 라트비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러시아 병역기피자 수용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외교장관은 “동원을 피하는 러시아인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살해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하지 않은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부분 동원에서 IT 종사자, 은행가, 국영매체 기자들은 제외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웹스트리트저널 영상 캡처

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직종 종사자임에도 징집 명령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국영 보도전문채널인 RT의 마르가리타 시몬얀 편집장은 징집 명령을 받은 고령자와 장애인 시민 목록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시몬얀 편집장은 또한 21일 구속된 시위자 중 200명 이상이 징집 영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4일 웹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동원에 반대하는 활동가들 중 일부는 시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러시아 국영언론들의 선전이 거짓임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전국의 최소 12개 도

시에서 다양한 저항 전략을 논의하는 지하조직들이 형성됐다.

지하조직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로지어스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활동은 러시아가 북한처럼 되지 않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미래 자손들을 위한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서연 기자 symin@skyedaily.com

“北, 한미훈련·해리스 美 부통령 방한 앞두고 미사일 발사”

외신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 후 도발에 주목” 日방위상 “北 미사일 최소 1발 발사... EEZ 밖 낙하 추정”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 후,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항공모함이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북한이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BBC방송도 “미 항공모함이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직후이자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수 김 애널리스트가 “이번 시험 발사 시점이 이번주 로널드 레이건호의 도착과 다음주 해리스 부사장의 서울 방문 사이에 끼어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수 김 애널리스트는 “한미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 개입하는 북한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해군은 23일 2017년 10월 이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미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한 가운데 갑판에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다.

뉴시스

후 약 5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항공모함단이 입항했다고 밝혔다. 항공모함단은 이날 말동해에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앉아 북한의 위협 및 양국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전에는 먼저 26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

리와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을 애도하고, 이튿날인 27일 국장에 참석한다.

한편,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25일 오전 6시52분께 북한 내륙에서 최소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이 탄도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최고 고도는 50km 정도, 거리는 통상 탄도 궤도라면 400km 정도 비행했을 것”이라며 낙하한 곳은 북한 동쪽 연안 부근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또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북한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의 항공기와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글로벌 클래스

영 음악가 엘튼 존 美 인문훈장 받아

에이즈 박멸 지원 공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이즈 박멸을 지원한 공로로 영국의 유명 음악가인 엘튼 존에게 국가인문훈장을 수여했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유명 음악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엘튼 존(75)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희망과 역사가 운ולה하는 밤’ 행사에서 연주를 끝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문훈장을 수상했다.

에이즈 박멸을 지원하고 엘튼 존 에이즈 재단을 통해 환자들의 생활 개선에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이 수여됐다. 눈물을 흘린 엘튼 존은 “무척 놀랐다”며 수상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30년 전에 단체를 설립할 때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헌신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인종, 민족, 국적,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에이즈, 오명, 불합리함, 학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그런 미래를 향한 유의미한 한 걸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해 교사와 학생, 간호사, 성소수자(LGBTQ+) 지지자들, 군인 가족들을 포함한 ‘일상의 영웅들’ 2000여명이 관객으로 초청됐다.

민서연 기자 symin@skyedaily.com



바이든 대통령이 엘튼 존에게 국가인문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가디언 영상 캡처

종근당건강

눈노화, 걱정마!

눈기 전에 지킨다

눈 건강 프로젝트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아이클리어는 종근당건강의 눈 건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황반의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눈 노화 집중케어!

- 황반 전체에 존재하는 루테인 + 황반 중심부 집중케어 '지아잔틴'
-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구매문의 1811-088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 제조원(주)서흥 / 판매원: 종근당건강(주)